

정부 3.0 시대의 건축행정정보 활용을 위한 정책제안

조상규 연구위원

요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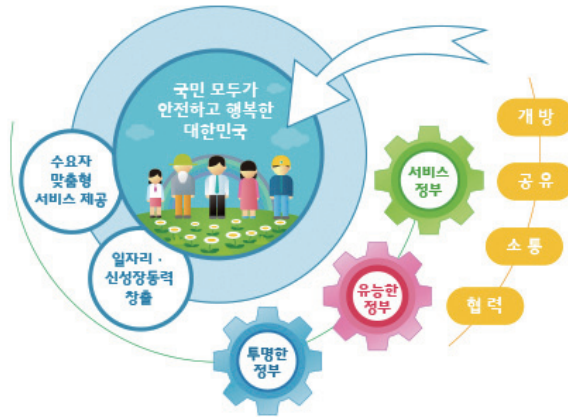
- 정부 3.0은 공공정보의 적극적 개방을 통해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, 민간 ICT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방침임
-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은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된 것으로, 건축물에 관한 각종 속성정보 및 도면 정보를 수집·관리하고 있으나 활용이 미비한 실정
- 반면에 정부 내부 및 민간 시장에서는 건축물 정보를 나름의 방법으로 구축·활용하고 있어, 정보의 신뢰도가 낮고 사회적 낭비가 심하여 정부 3.0 방침에 부합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

정책제안

- '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' 개정을 통해 건축행정정보 민간개방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
- 정보 개방을 위한 규제완화와 별개로, 건축행정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활용을 위해서는 정보유통을 위한 표준 데이터 형식 개발 및 보안조치를 마련할 필요
- 민간개방 및 성과공유체계 구축을 위해 건축행정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개발을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

1 배경 및 필요성

- 정부 3.0은 공공정보의 적극적 개방을 통해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ICT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방침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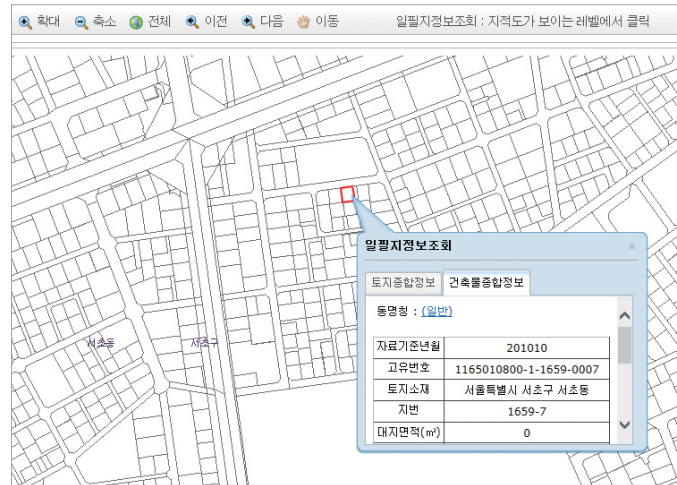
정부 3.0 추진개념
출처 : 안전행정부

- 우리나라의 건축행정정보는 세움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축된 건축물 및 주택사업 인허가 대장, 건축물대장이 대표적이며, 향후 건축물 에너지소비정보 및 유지관리 점검 결과가 추가로 구축될 예정
- 그러나 건축행정의 전산화에 대한 투자와 노력에 비해 데이터 공개 및 활용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, 정부 3.0 방침에 부합하는 건축행정정보 개방 및 활용방안 모색이 시급함

2 현황 및 문제점

■ 건축행정정보의 구축 및 서비스 현황

- 현재 건축물 정보는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, 전자민원 시스템, 모바일 부동산 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경로로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함



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의 건축물정보 조회서비스



국토교통부의 스마트 국토정보 서비스

-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 민원을 통해 제한된 영역 또는 행정구역에 대한 건축물대장 원천자료를 제공하기도 하나, 민간 사업자가 이를 활용하여 매쉬업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건축물정보를 유통하는 것은 불가능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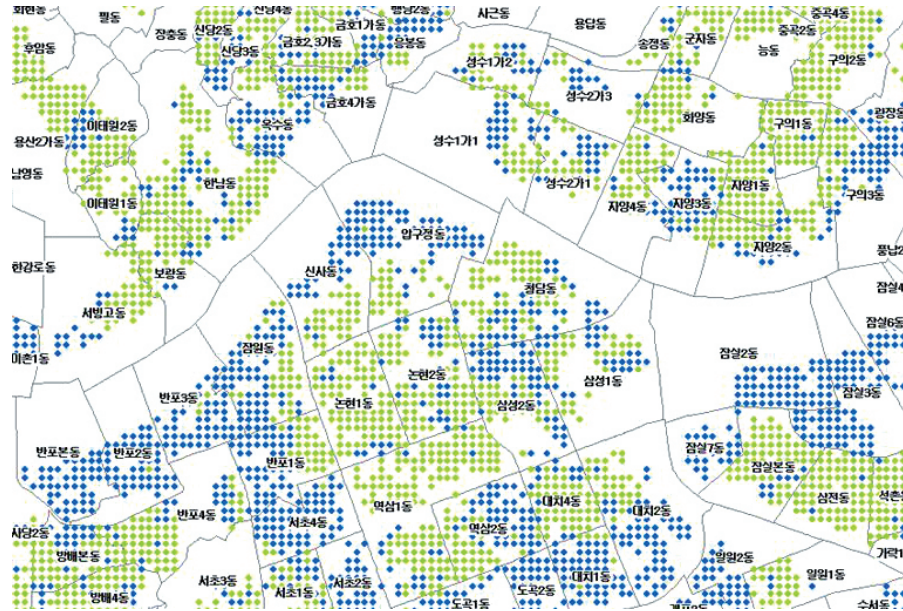
■ 민간부문의 건축물정보 구축 및 활용 현황

- 건축물 대장정보 등 기본적인 건축물 정보가 공개되지 못하여 민간에서는 나름의 방법으로 건축물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함
- 주요 포털 서비스의 지도 서비스 및 네비게이션 업체는 자체 측량조사를 통해 건축물 정보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어 막대한 비용이 발생



포털사이트 '다음'의 3차원 건물지도 서비스 화면

- 일부 GIS 전문기업에서는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정보를 바탕으로 건축물 관련 정보를 나름대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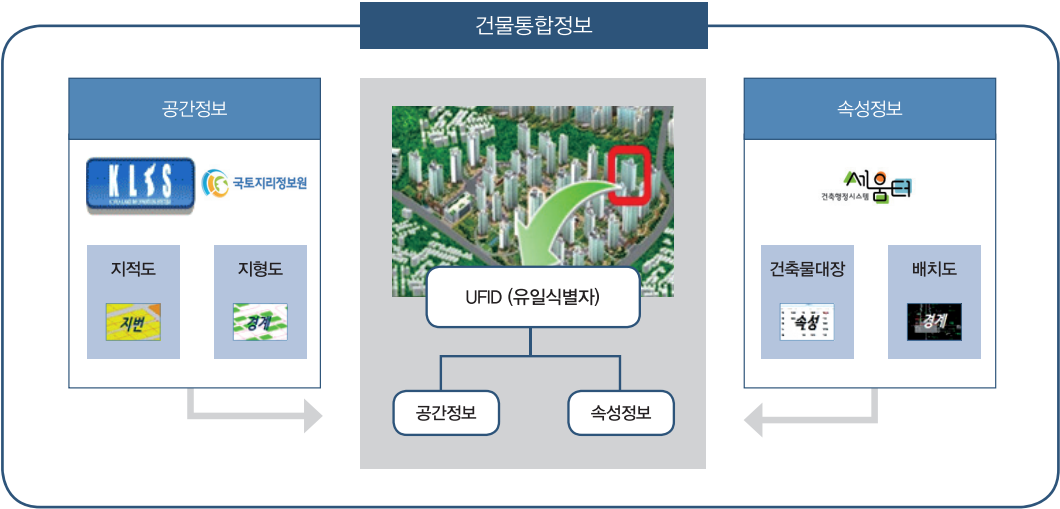


민간 GIS 업체의 서울시내 빌라 분포 데이터

출처 : ㈜GIS 유나이티드

■ 건축행정정보 유통체계 미비로 인한 정부 내 비효율 발생

- 공간 빅데이터의 기본이 되는 건축물 정보의 정부 내 공유가 미비하여 지리정보 제작 시에는 항공사진 등 영상정보를 기준으로 별도 구축 비용이 발생
- 이를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는 ‘GIS 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’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양한 시스템 간 연계 과정에서 건축물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움터 시스템 자체의 고도화가 시급함
 - 인·허가를 위해 세움터에 제공되는 CAD 도면에 공간정보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좌표계 정보가 누락되어 신축 건물이 발생할 경우 연계 작업이 지속적으로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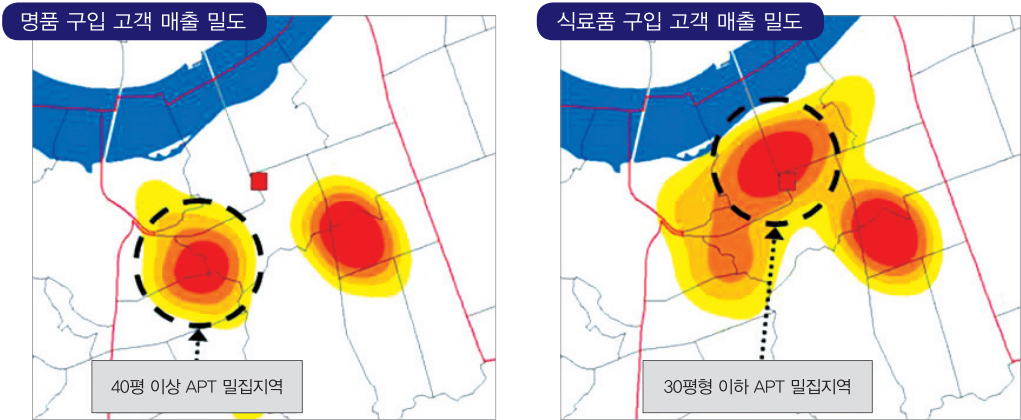


국토교통부의 건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개념

3 건축행정정보 개방을 통한 활용 가능 분야

■ 공간정보와 연계된 맞춤형 정보서비스 개발

- 건축물 정보를 공간정보와 연계시켜 적극 개방할 경우, 타 분야 정보와 결합한 매시업(Mesh-Up) 분석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가능
- 건축행정정보는 상권분석, 재해 안전도 분석, 생활 여건에 대한 분석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석 및 융·복합 정보 서비스 개발에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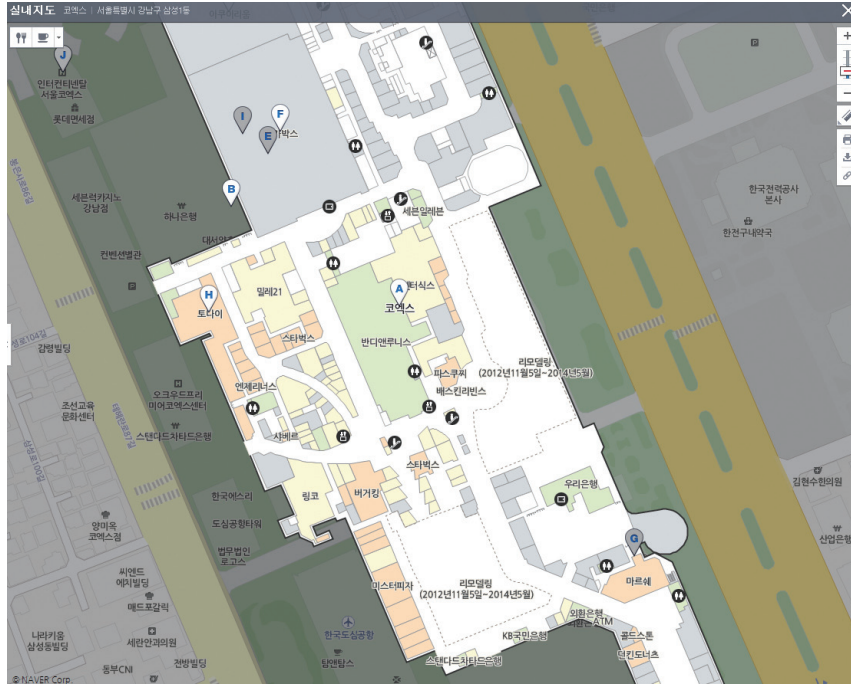


건축물 정보를 활용한 공간분석 사례

출처 : (주)GIS 유나이티드

■ 도면정보 활용을 통한 광고 및 마케팅 서비스 개발

- 구글의 경우 지도정보와 건축물 평면도 정보를 결합하여 실내지도정보서비스를 개발하였고 국내 포털 사업자들도 대형 상업시설에 대한 실내지도서비스를 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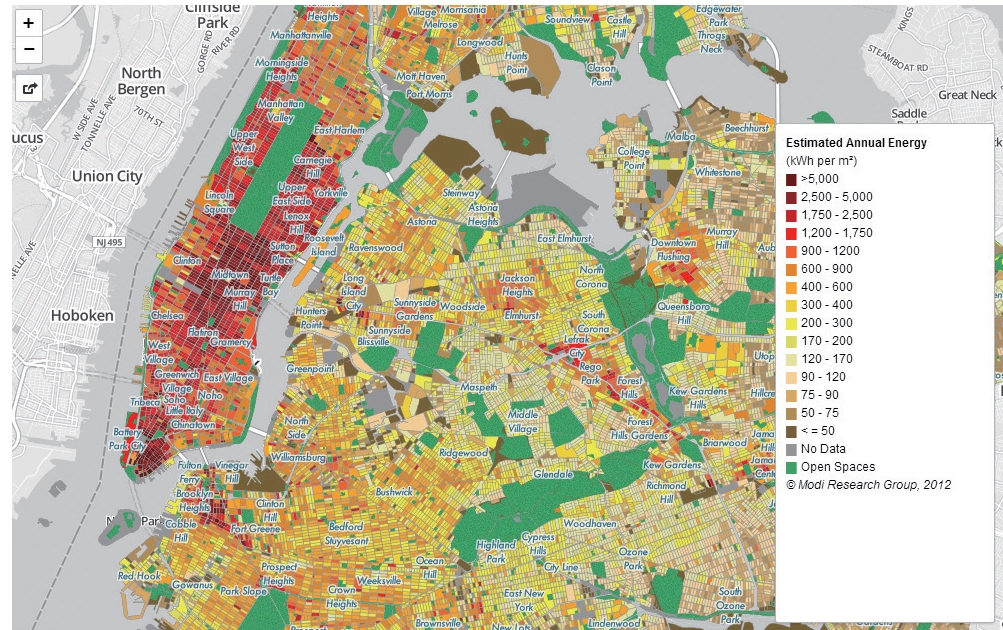


- 현재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주 이외에 건축물 평면도 열람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반면, 건축주가 원하더라도 도면정보를 개방할 방법이 미비한 실정
- 따라서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건축행정정보의 민간 활용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임

■ 건축물 에너지 정보를 활용한 정책개발 및 민간 시장 활성화

- 현재 구축이 진행 중인 ‘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’에 의해 생성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정보는 정부 정책 수립 뿐만 아니라 민간시장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
- 해외에서는 시스템에 의한 전수조사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에너지소비실태조사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소비량을 추정하여 지도에 시각화하는 등 적극적 활용에 힘을 쓰고 있음

- 건축물 정보 및 공간정보와 결합된 에너지 소비 정보의 민간 개방은 ‘정부 3.0’ 뿐만 아니라 녹색건축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적극 추진이 필요



뉴욕시의 블록별 건물에너지소비현황지도

출처 : Modi Research Group

4 정책과제 제안

■ (1단계) 건축물대장 관련 규정 개선

-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’은 공적 장부로서의 건축물대장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나 ‘정부 3.0’ 개념에 대응하는 건축물정보 활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
- 특히 동 규정 제11조(건축물대장 등본/초본의 발급 및 열람)는 건축물대장 정보의 열람에 대해 상당한 규제를 가하고 있어 정보 개방에 앞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함
- 도면정보의 건축물 소유자 외 열람 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공공에 도면정보를 개방할 수 있도록 하거나, 민간 건축물의 도식화된 평면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등 전향적 조치가 필요

■ (2단계) 정부 3.0 대응을 위한 건축행정정보의 유통체계 구축

- 정보 개방을 위한 규제완화와 별개로, 건축행정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활용을 위해서는 정보유통을 위한 표준 데이터 형식 개발이 필요
- 이와 아울러 국가안보와 관련된 건축물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안 조치 및 기술 개발이 병행되어야 함

■ (3단계) 민간개방 및 성과공유체계 구축

- 건축행정정보 원천자료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되 이를 활용한 성과를 적극 공유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
- 건축행정정보 활용을 통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개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전면개방에 앞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임

조상규 연구위원 (031-478-9625, blaster@auri.re.kr)

*본 원고는 저자가 한국건설신문에 기고한 '정부 3.0 시대를 위한 건축행정정보의 민간개방과 활용'을 바탕으로 수정·보완한 것입니다.



건축도시공간연구소

발행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행인 제해성

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(관양동) 아크로타워 B동 301호

전화 031-478-9600 팩스 031-478-9609 www.auri.re.kr



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

한도가 함께하는

총간소음 줄이기!

우리 서로 배려해요

1

'공공' 놀이 아이들 뛰는 소리, 문닫는 소리는 직경

2

늦은 시간 양치질, 악기연주는 이제 그만!

3

물소리, 세탁기소리도 밤에는 시끄러워요. 청소와 빨래는 낮에

4

우리집 바닥은 아랫집의 천장이예요. 서로 배려하기

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

1

새로 짓는 아파트는 바닥을 더 두껍게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!

2

표준관리규약준칙(안) 마련 및 시·도 배포